#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 연번 | 표제항 (영역별 가나다순)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
| 1-1 | 그거-참 | % | 그거-참 「감탄사」 '그것참'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그거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그거참}, 잘됐네그려. 「준」 거참. | 표제어 추가 |
| 1-2 | 동^주민^센터 | % | 동^주민^센터(洞住民center) 『법률』 동(洞)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 나는 주민 등록 등본을 {동 주민 센터에서} 발급받았다. | 표제어 추가 |
| 1-3 | 분리-배출 | % | 분리-배출(分離排出) [불- - - ] 「명사」 『법률』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버림. ¶건설 폐기물 {분리배출}/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우리 아파트의 {분리배출} 시간은 매주 월요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 표제어 추가 |
| 1-4 | 아침-내 | % | 아침-내 「부사」 아침동안 줄곧. ¶사무실 이전으로 {아침내} 짐을 쌌는데 아직 반도 못 쌌다./그러고 보니까 {아침내} 술 먹은 것을 후회하고 병이 도로 도질까봐 근심하던 것이 도리어 화가 났다.≪유진오, 가을≫ | 표제어 추가 |
| 1-5 | 여쭈어-보다 | % | 여쭈어-보다[-보아(-봐), -보니] 「동사」 【…에게 …을】 【…에게 -ㄴ지를】 【…에게 - 고】 '물어보다'의 높임말. ¶ 아이가 할아버지께 연을 만드는 방법을 {여쭈어본다}. ‖ 그는 어르신께 그녀가 언제 떠났는지를 {여쭈어보았다}. ‖ 그는 그의 할머니께 진지는 드셨느냐고 {여쭈어보았다}. 「준」 여쭤보다. | 표제어 추가 |
| 1-6 | 여쭤-보다 | % | 여쭤-보다[-보아(-봐), -보니] 「동사」 【…에게 …을】 【…에게 -ㄴ지를】 【…에게 - 고】 '여쭈어보다'의 준말. ¶나는 선생님께 어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여 | 표제어 추가 |

| | | | | |
|---|---|---|---|---|
| | | | 쭤봤다}. ‖ 나는 근처 복덕방 할아버지께 그녀를 보셨는지를 {여쭤봤다}. ‖ 그녀가 주인에게 과일 한 바구니가 얼마냐고 {여쭤본다}. | |
| 1-7 | 주책-맞다 | % | 주책-맞다[-챙맏따][-맞아, -맞으니] 「형용사」=주책스럽다. ¶{주책맞게} 들리는 소리/{주책맞아} 보이다/ {주책맞은} 사람. | 표제어 추가 |
| 1-8 | 주책-스럽다 | % | 주책-스럽다[—쓰-따][-스러워, -스러우니] 「형용사」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는 데가 있다. ≒주책맞다. ¶{주책스러운} 행동/아버진 처녀장가 든 게 {주책스러워} 보이지 않을 만큼 아직 젊고 멋쟁이인데…. ≪박완서, 오만과 몽상≫ | 표제어 추가 |
| 1-9 | 차시01 | % | 차시01(次時) 「명사」 「1」단원별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 내용 전체를 시간별로 쪼갠 것. ¶수업 {차시를} 구성하다/다음 {차시로} 넘어가다/이번 {차시에} 배울 내용.<br>「2」((한자어 수 뒤에 쓰여)) '「1」'을 세는 단위. ¶일 {차시}/총 {12차시}. | 표제어 추가 |
| 2-1 | 일반용어 | 일반-용어 | 일반^용어 | 표제어 수정 |
| 2-2 | 일상용어 | 일상-용어 | 일상^용어 | 표제어 수정 |
| 3-1 | 그대로 | 「부사」 「1」 변함없이 그 모양으로. ¶{그대로} 간직하다/{그대로} 가만히 있다./{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라./{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당분간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생각입니다. 「2」 그것과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다/{그대로} 되풀이하다/그 아이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 | 「부사」[ I ]「1」 변함없이 그 모양으로. ¶{그대로} 간직하다/{그대로} 가만히 있다./{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라./{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당분간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생각입니다. 「2」 그것과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다/{그대로} 되풀이하다/그 아이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br>[II]「명사」 「1」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관찰한 {그대로를} 표현해 보세요./지붕에는 청산을 이고 뜰에는 옥계가 흐르는 데 간설 속에 잠든 듯 누워 있는 농가는 {그대로가} 그림이요, 선경이다.≪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2」 그것과 똑같은 것. ¶언젠가 철이 보다 못해 석 달 전에 의사가 자기더러 하 | 뜻풀이 추가 |

| | | | | |
|---|---|---|---|---|
| | | | 던 말 꼭 {그대로를} 권한 일이 있었다.≪이범선, 사망 보류≫/몸이 떨린다. 헛간과 부엌과 우물과 장독대가 옛 모습 {그대로의} 그의 집이다.≪홍성원, 육이오≫ | |
| 3-2 | 만01 | 「의존명사」 ((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십 년 {만의} 귀국/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 「의존명사」((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1」((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십 년 {만의} 귀국/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br>「2」 ((횟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횟수를 끝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말. ¶나는 세 번 {만에} 그 시험에 합격했다./그와 결혼을 결심한 것은 만난 지 다섯 번 {만이다}/선비는 몇 번 {만에} 겨우 일어났다.≪강경애, 인간문제≫ | 뜻풀이 추가 |
| 3-3 | 맡01 | '그 길로 바로'의 뜻을 나타내는 말. ¶집에 막 들어서려는 {맡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다./영업을 끝내려던 {맡인데} 손님들이 들어왔다./저녁밥을 먹다가 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밥숟가락을 놓던 {맡으로} 뛰어나갔다./주막집으로 들어가는 {맡으로} 노파에게 술국이라도 끓이라고 부탁하고 방으로 들어가서….≪변영로, 명정 40년≫ | 「1」 '어떤 일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집에 막 들어서려는 {맡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병일은 여해를 보던 {맡에}, 고함을 질렀다.≪현진건, 적도≫/접골사는 이윽고 입실하는 {맡으로} 치료 개시하였다.≪변영로, 명정 40년≫/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머니는 교문을 들어서던 {맡으로} 학생들의 굉장한 열기에 휩싸였다.≪최일남, 그때 말이 있었네≫<br>「2」 '어떤 일을 하는 김에'의 뜻을 나타내는 말. ¶두부 사러가는 {맡에} 담배도 한 갑 샀다./초봉이는 친가에 있을 때의 버릇대로 퍼뜩 잠이 깨어, 깨던 {맡으로} 벌떡 일어나 앉는다.≪채만식, 탁류≫ | 뜻풀이 추가 |
| 3-4 | 밭도지 | 남의 밭을 빌려서 부치고 그 삯으로 해마다 주인에게 내는 현물. | 「1」 남의 밭을 빌려서 부치고 그 삯으로 해마다 주인에게 내는 현물. 또는 그렇게 내는 삯. ¶{밭도지} 보리/{밭도지} 2년치를 미리 주다/금년 농사에 1평당 1천 원씩의 {밭도지가} 들어갔다./대관절 올 {밭도지} 벼 두 섬 반은 뭐로 해내야 좋을지.≪김유정, 금 따는 콩밭≫ | 뜻풀이 추가 |

| | | | | |
|---|---|---|---|---|
| | | | 「2」 삯을 주고 주인에게 빌려서 부치는 밭. ¶{밭도지를} 얻다/{밭도지} 400평과 논 다섯 마지기를 임대하다. | |
| 3-5 | 상26 | 「1」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관계상}/{미관상}/{사실상}/{외관상}/{절차상}.<br>「2」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터넷상}/{전설상}/{통신상}. | 「1」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관계상}/{미관상}/{사실상}/{외관상}/{절차상}.<br>「2」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터넷상}/{전설상}/{통신상}.<br>「3」 물체의 위나 위쪽을 이르는 말. ¶{지구상의} 생물/{지도상의} 한 점/{직선상의} 거리/{도로상에} 차가 많이 나와 있다. | 뜻풀이 추가 |
| 3-6 | 상당하다 | 「형용사」<br>[1] 【…에】<br>「1」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다.<br>「2」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알맞다. ¶시가 백만 원에 {상당한} 금반지.<br>[2]<br>「1」 수준이나 실력이 꽤 높다. ¶그는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다.<br>「2」 어지간히 많다. 또는 적지 아니하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다. | [Ⅰ]「동사」 【…에】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 ¶100달러면 우리 돈으로 11만원에 {상당한다}./달과 지구의 반경과 질량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인간은 달 위에서 12kg에 {상당하는} 중력을 받는다./그 공공 기관에 지원하려면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br>[Ⅱ]「형용사」 [1] 【…에】<br>「1」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다.<br>「2」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알맞다. ¶시가 백만 원에 {상당한} 금반지.<br>[2]<br>「1」 수준이나 실력이 꽤 높다. ¶그는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다./그 호텔은 서비스와 시설은 좋지만 가격이 {상당하다}.<br>「2」 어지간히 많다. 또는 적지 아니하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다. | 뜻풀이 추가 |
| 3-7 | 외국어 | 다른 나라의 말. ≒외어01(外語)·타국어. ¶{외국어를} 배우다/{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란 쉽지 않다. | 「1」 다른 나라의 말. ≒외어01(外語)·타국어. ¶{외국어를} 배우다/{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란 쉽지 않다.<br>「2」 『언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아직 국어로 정착되지 않은 단어. 무비, 밀크 따위가 있다. | 뜻풀이 추가 |
| 3-8 | 점심 | 「1」 낮에 끼니로 먹는 음식. ≒중식01. ¶{점심} 급식/{점심을} 먹다/{점심을} 라면으로 때우다/밭에서 일하는 장 | 「1」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부터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딸아이는 {점심에나} 일어났다./어제 | 뜻풀이 추가 |

| | | | | |
|---|---|---|---|---|
| | | 손이 부부에게 {점심도} 갖다 줄 겸 모가 붙은 논을 보고 오라고 보내고…:≪안수길, 북간도≫<br>「2」『민속』 무당이 삼신에게 떡과 과일 따위의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갓난아이에게 먹일 젖이 풍족하기를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일.<br>「3」『불교』 선원에서, 배고플 때에 조금 먹는 음식을 이르는 말. 마음을 점검한다는 뜻이다. | {점심에} 비가 내렸다./나는 {점심에} 낮잠을 꼭 잔다.<br>「2」 '「1」'에 끼니로 먹는 음식. 또는 '「1」'에 끼니를 먹는 일. ¶{점심} 급식/{점심을} 먹다/{점심을} 라면으로 때우다/밭에서 일하는 장손이 부부에게 {점심도} 갖다 줄 겸 모가 붙은 논을 보고 오라고 보내고….≪안수길, 북간도≫<br>「3」『민속』 무당이 삼신에게 떡과 과일 따위의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갓난아이에게 먹일 젖이 풍족하기를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일.<br>「4」『불교』 선원에서, 배고플 때에 조금 먹는 음식을 이르는 말. 마음을 점검한다는 뜻이다. | |
| 3-9 | 차로02 | =찻길「2」. | 「1」=찻길 「2」.<br>「2」『법률』 차가 한 줄로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찻길의 부분. ¶{차로} 감소/왕복 사 {차로}/{차로를} 변경하다/도로 보수를 위하여 한 {차로를} 막고 있다. | 뜻풀이 추가 |
| 3-10 | 차오르다 | 어떤 한도나 높이에 다다라 오르다. ¶물이 허리에 {차오를} 때까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앞에 가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 뭉쳐 머리에 이고 벌거숭이 몸으로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물이 거의 그들의 목에까지 {차올랐다}.≪황석영, 한 씨 연대기≫ | 「1」 물 따위가 어떤 공간을 채우며 일정 높이에 다다라 오르다. ¶물이 허리에 {차오를} 때까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앞에 가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 뭉쳐 머리에 이고 벌거숭이 몸으로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물이 거의 그들의 목에까지 {차올랐다}.≪황석영, 한 씨 연대기≫/여자의 눈에선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박영한, 인간의 새벽≫<br>「2」 감정 따위가 마음속에 점점 커지다. ¶가슴에 불만이 {차오르다}/마음에 슬픔이 {차오르다}/나는 잦아드는 부네의 방을 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오정희, 유년의 뜰≫/원장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다.≪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 뜻풀이 추가 |
| 3-11 | 투여 | 약 따위를 남에게 줌. | 「1」 약 따위를 환자에게 복용시키거나 주사함.<br>「2」 돈이나 노력 따위를 어떤 일에 들임.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공적 자금 {투여가} 확실시되고 있다. | 뜻풀이 추가 |

| | | | | |
|---|---|---|---|---|
| 3-12 | 표준어 |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중말·표준말. | 「1」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대중말 「1」·표준말 「1」. ¶{표준어} 교육/{표준어} 발음/그 회사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만 상담원으로 채용한다.<br>「2」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중말 「2」·표준말 「2」. ¶{표준어} 사정 원칙/공적인 자리에서는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 뜻풀이 추가 |
| 3-13 | 하12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식민지하}/{원칙하}/{지도하}/{지배하}. | ((일부 명사 뒤에 붙어))<br>「1」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식민지하}/{원칙하}/{지도하}/{지배하}.<br>「2」 아래 또는 아래쪽이나 밑. ¶{교각하} 추락 주의./{선반하} 적치 금지. | 뜻풀이 추가 |
| 4-1 | 차선03 |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도로에 그어 놓은 선을 세는 단위. ¶왕복 사 {차선} 도로/도로 보수를 위하여 한 {차선을} 막고 있다. | 「2」 '차로02 「2」'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차선} 감소/{차선} 준수/{차선을} 바꾸다/{차선을} 변경하다/왕복 사 {차선}/도로 보수를 위하여 한 {차선을} 막고 있다. | 뜻풀이 수정 |
| 4-2 | 터울 | 「1」 한 어머니의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와의 나이 차이. | 「1」 한 어머니로부터 먼저 태어난 아이와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와의 나이 차이. 또는 먼저 아이를 낳은 때로부터 다음 아이를 낳은 때까지의 사이. | 뜻풀이 수정 |
| 4-3 | 기호품 | 「1」 술, 담배, 커피 따위와 같이, 영양소는 아니지만 독특한 향기나 맛이 있어 즐기고 좋아하는 음식물. ≒기호료·기호물. | 「1」 독특한 향기나 맛이 있어 즐기고 좋아하는 물품. 술, 담배, 커피 따위가 있다. ≒기호료·기호물. | 뜻풀이 수정 |
| 4-4 | 벅적지근하다 | 가슴에 좀 뻐근한 느낌이 있다. | 몸이 뻐근하게 아픈 느낌이 있다. '뻑적지근하다'보다 여린 느낌을 준다. | 뜻풀이 수정 |
| 5-1 | 다운 | 「1」 가격, 비용, 수량, 능률, 출력 따위가 내리거나 줆. 또는 그렇게 되게 함. ¶가격 {다운}/배가 고장 나 출력 {다운으로} 갑자기 속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 % | 뜻풀이 삭제 |

| | | | | |
|---|---|---|---|---|
| 5-2 | 무엇하다 | [ㅣ]「동사」<br>어떤 일 따위에 이용하거나 목적으로 하다. ¶그거 사서 {무엇하게}?/집에 있지 {무엇하러} 왔느냐?<br>[ㅣㅣ]「형용사」<br>【…이】【-기가】<br>언짢은 느낌을 알맞게 형용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표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암시적으로 돌려서 쓰는 말. 주로 '거북하다', '곤란하다', '난처하다', '딱하다', '미안하다', '싫다' 따위의 느낌을 나타낼 때 쓴다. ¶나는 그 일이 조금 {무엇해서} 그만두었다./좀 {무엇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정 {무엇하다면} 학력 테스트를 해서 판정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 길에서 멀거니 서 있기가 하도 {무엇해서} 신문을 펴 들었다./여자들 틈에 혼자 앉아 있기가 좀 {무엇해서} 담배 피운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왔다./내외가 심한 낯모르는 아낙네들과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무엇하여} 그냥 되돌아서려고 하는데….≪문순태, 타오르는 강≫<br>「준」 멋하다;뭐하다;뭣하다 | 「형용사」<br>【…이】【-기가】<br>내키지 않거나 무안한 느낌을 알맞게 형용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표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암시적으로 돌려서 쓰는 말. 주로 '거북하다', '곤란하다', '난처하다', '딱하다', '미안하다', '싫다', '수줍다', '쑥스럽다' 따위의 느낌을 나타낼 때 쓴다. ¶나는 그 일이 조금 {무엇해서} 그만두었다./좀 {무엇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정 {무엇하다면} 학력 테스트를 해서 판정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 길에서 멀거니 서 있기가 하도 {무엇해서} 신문을 펴 들었다./여자들 틈에 혼자 앉아 있기가 좀 {무엇해서} 담배 피운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왔다./내외가 심한 낯모르는 아낙네들과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무엇하여} 그냥 되돌아서려고 하는데….≪문순태, 타오르는 강≫<br>「준」 멋하다;뭐하다;뭣하다 | 뜻풀이 삭제 |
| 5-3 | 상02 | 「3」 물체의 위나 위쪽을 이르는 말. ¶지구 {상의} 생물. | % | 뜻풀이 삭제 |
| 5-4 | 하04 | 「1」 아래 또는 아래쪽이나 밑. | % | 뜻풀이 삭제 |
| 6-1 | 갓봉돌 | [갇뽕-] | [갇뽕똘] | 발음 수정 |
| 7-1 | 녹차01 | (綠茶) | (綠-) | 원어 수정 |

## 「외래어 표기법」 일부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변경 내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28일에 「외래어 표기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고유어나 한자어에 붙을 때에는 붙여 써 왔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의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띄어쓰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 개정 전 | 개정 후 |
|---|---|---|
| 외래어에 붙을 때 | 그리스 어, 그리스 인,<br>게르만 족, 발트 해<br>나일 강, 에베레스트 산, 발리 섬<br>우랄 산맥, 데칸 고원, 도카치 평야 | 그리스어, 그리스인,<br>게르만족, 발트해<br>나일강, 에베레스트산, 발리섬<br>우랄산맥, 데칸고원, 도카치평야 |
| 비외래어에 붙을 때 | 한국어, 한국인, 만주족, 지중해<br>낙동강, 설악산, 남이섬<br>태백산맥, 개마고원, 김포평야 | 한국어, 한국인, 만주족, 지중해<br>낙동강, 설악산, 남이섬<br>태백산맥, 개마고원, 김포평야 |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개정 전에는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따라 '발트 해/지중해'와 같이 띄어쓰기를 달리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발트해/지중해'와 같이 띄어쓰기 방식이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도버 해협/대한 해협'과 같이 개정 전에도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관계없이 띄어쓰기가 일정하던 어휘는 개정 후에도 띄어쓰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개별 어휘들의 올바른 띄어쓰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띄어쓰기가 변경되는 말은 다음과 같다. 아래 제시된 말들은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하던 것들인데, 개정 후에는 앞에 오는 말의 어종에 관계없이 모두 앞말에 붙여 쓰게 된다.

○ 가(街), 강(江), 고원(高原), 곶(串), 관(關), 궁(宮), 만(灣), 반도(半島), 부(府), 사(寺), 산(山), 산맥(山脈), 섬, 성(城), 성(省), 어(語), 왕(王), 요(窯), 인(人), 족(族), 주(州), 주(洲), 평야(平野), 해(海), 현(縣), 호(湖) (총 26항목)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명과 관련된 말을 고유어나 한자어 뒤에서 붙여 써 왔다면 외래어 뒤에서도 일관되게 붙여 쓸 수 있다.(예: 서울시, 수원시/뉴욕시)

이번 개정안은 띄어쓰기를 좀 더 간명하게 함으로써 언어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한 것이며,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좀 더 편한 언어생활을 위해 어문 규정을 다듬어 갈 것이다.